

타는 목마름의 민주주의여 만세

허문명 기자가 쓰는 '김지하와 그의 시대'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포천시 의문의 추락사

<82>민주구국선언

김지하 옥중 양심선언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1975년 8월 17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니 장준하 선생의 추락사였다. 그는 재야를 중심으로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해 1974년 4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지병인 협심증과 간경화 악화로 12월형 집행정지로 출옥한 상태였다.

출옥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통해 정권과 맞섰다. 그러던 중 1975년 8월 17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악회원 40여명과 함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약사봉에 올랐다가 절벽 아래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그의 최후는 의문투성이었다.

그는 황폐하고 절망적이며 지저분한 '사상계'를 발간해 지식인들의 영혼과 정신을 울렸던 지식의 보루였으며 한일회담 반대운동, 민족통일운동,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이끌던 '재야의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천적'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모욕감을 주는 극단도 서슴지 않았다. 1966년 삼성 계열의 한국비료가 대량의 사카린을 밀수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박 대통령을 '밀수왕초'라 불렀고 1967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는 베트남전 참전을 주도했다며 박 대통령을 '매혈자'라고 비난해 국가원수모독죄로 3개월 옥살이를 했다.

일제 때 반일민족주의를 표방한 그의 사상적 경향은 반공 반북을 견지한 자유민주주의였다. 독재에는 반대했지만 남북한 문제, 민족통일 문제에서는 적어도 이승만 노선이나 박정희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자 "모든 통일은 선(善)"이라는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생전에 청빈한 생활로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상중(喪中)에 대접할 쌀이 없어 문상객들이 각자 먹을 쌀을 가져갔다는 일화도 있고 셋집을 전전해 가족들이 장 선



1976년 5월 4일 '3·1구국민주선언' 사건 1회 공판정인 대법정 밖 연좌시위 모습.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왼쪽)의 모습도 보인다. 입술의 십자 표시는 민주주의의 고난과 언론의 자유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동아일보DB

생 부의금에 약간의 돈을 보태 겨우 셋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인에게는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인 1991년 8월 15일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1999년 11월 1일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2013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그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재야의 구심점이 느닷없이 사라졌지만 반독재, 반유신헌법 투쟁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1976년으로 접어들면서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권, 재야 명망가들이 총망라되는 '3·1민주구국선언'이 나온다. 국민들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기념일인 3·1절에 맞춰 시국선언을 내야 한다는 여론은 여러 갈래에서 일었다. 한 갈래는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와 정일형 의원 등 정치권이고

다른 한 갈래는 개신교 쪽이었다. 이들은 윤보선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통합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성명서 발표 현장이던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아내와 기도회에 참석했다. 미사가 끝나고 문익환 목사의 동생인 문동환 목사가 설교를 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족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높이 찬양을 받았습시다. 박 대통령도 이 시점에서 물러선다면 한국 역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신도들 낮이 변했다.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이어서 키 작은 여인이 앞으로 나왔다. 이우정 교수였다. 그는 차분하지만 포력한 어조로 우리가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다. 선언문이 낭독되는 동안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기도회는 조용히 끝났지만 이튿날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연행되기 시작했다. 이어 3월 10일 서울지검 서정각 검사장이 '3·1구국선언'을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관련자 20명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서 검사장은 "일부 재야인사들이 반정부 분자를 규합해 계열별로 민주회복국민회의 또는 갈릴리교회 등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를 만들어 종교 행사를 방자해 수시로 회합, 모의하면서 긴급조치 철폐, 정권 퇴진 요구 등 불법적 구호를 내세워 정부 전복을 선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눈엣가시로 여겨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매겠다는 의도가 뻔한 것이었다. 선언문 서명자는 10명이었는데 기소된 사람은 18명이나 되었고 3월 1일 행사뿐 아니라 1월 23일 원주 원동성당 신구 교회 연합기도회와 원주선언 사건

DJ, 자서전서 회고 '구국선언' 발표 현장

미사가 끝나고 문동환 목사가 설교를 했다 '박 대통령 물러나면 놀이 평가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B 신도들 낮이 변했다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관련자들까지 함께 연루시켰기 때문이었다. '3·1구국선언'은 긴급조치 9호 선포로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제10당원의 유력한 대권 후보, 현역 정치인, 재야 원로와 교수, 신구 교회의 중심인물이 총망라되어 반유신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월 1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인권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라이샤워, 코언 교수 등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 정계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인권탄압 정권에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 하원의원 102명과 상원의원 17명은 박 대통령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서한을 보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3월 8일 새벽에 끌려갔다. 자서전 중 한 대목이다.

"나는 곧바로 서대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독방에 갇혔다. 감옥 안은 무척 추웠다. (교통사고 후유증인) 고관절 변형으로 바닥에 앉아 있기가 무척 불편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뜯는으로 밤을 새웠다. 그럴 때면 병을 갖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 통증을 멎는 것 같았다. 무릎을 굽힐 수 없으니 식사할 때 너무 무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최소한의 의사와 식탁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1년 9개월가량의 옥고를 마치고 1977년 12월 18일 전주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김 전 대통령의 연금 생활은 1년 뒤인 1978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9대 대통령 취임을 기해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면서 2년 10개월 만에 풀린다.

올 7월 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민주구국선언'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36년 만에 무죄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선언에 참여했던 고 문익환 목사,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정일형 전 의원, 고 함석헌 선생 등 16명이 모두 뒤늦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저성장은 질적 사회로 가는 반전 기회

新 무소유 시대 일본 저성장 풍속도(9·끝)

경제는 흔히 숫자로 표현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 또한 '잠재성장률 3%대로 급락', '실질성장률 3년 연속 잠재성장률 하회 전망' 등의 경고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에 대한 지표와 담판만 많을 뿐, 저성장 사회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경제 침체는 사회의 구조만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문화와 의식도 바뀐다. 가까운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정부와 기업이 '경제 부흥'을 목표로 단결했다. 종신고용을 보장해주는 안정된 직장에서의 사람들은 '회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전자, 자동차, 조선, 제철 산업을 중심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뤘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평균 실질성장률이 10%에 달할 정도였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1등 일본(Japan as Number One)'이 등장한 시기기도 이때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장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1990년대 초 자산 버블의 붕괴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이어진 저성장 시대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른다. 실질성장률은 매년 1~2%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극단적으로 '하류사회'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수출기업은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종신고용은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까지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희망의 격차'다. 2006년 니혼게이지아신문의 계층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중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1987년과 비교해 21%포인트 감소한 54%인 반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7%포인트가 증가한 37%이다. 특히 태어난 때부터 길게 지속된 저성장 시대에 익숙해져 버린 젊은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기 자신을 '88만



자가상품이 물려 있는 쇼핑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일본 소비자들. 사진출처 AP뉴시스

원 세대'라고 부르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주저 없이 말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성장의 폐해는 우리 곁에 부쩍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저성장·무소유 시대에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사회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기존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바뀌는 변곡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개개인의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자. 미래의 소득 증가를 전제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과시형, 모방형 소비가 고도성장기의 소비 형태였다면, 불필요한 곳에는 소비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소비로 옮겨 가는 것이 성숙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합리적, 개성적인 소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성장·무소유 시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형 성숙사회로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희망이다.

최창희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대표
정리=노지현 기자 isilyou@donga.com

@ 뉴스룸

무대에는 클로즈업이 없다



손택균 문화부 기자

상반기 흥행작인 뮤지컬영화 '레미제라블'의 절정부는 초반 4분 40여 초간의 여배우 독창이다. 톰 후퍼 감독은 카메라 움직임은 최소화해 울부짖듯 노래하는 앤 해서웨이를 묵묵히 클로즈업했다. 판타지의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배우의 얼굴이 스크린 가득 채워졌다. 입술 끝 작은 떨림 하나하나가 관객의 마음을 울려 왔다.

같은 노래가 흐르는 같은 장면을 뮤지컬 무대에서는 클로즈업할 수 없다. 카메라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다. 배우가 발산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편집도 당면하지 않다. 무대로부터 번져 나오는 에너지와 열마나 소통하느냐는 온전히 관객 각자에게 달렸다.

뮤지컬뿐이 아니다. 유명 협연자의 이름을 앞세운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메인 연주자만 뿔어져라 집중하는 관객은 많지 않다. '제비이웃린'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앉은 여성 연주자, 내 타임이더라. "그때? 진작 얘기하지. 못 봤네." 공연장에서 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재미다. 노래에 귀 기울이는 사람,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 이야기 흐름에 신경 쓰는 사람. 정답

은 물론 없다. 각양각색의 취향과 목적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며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연이 완성된다.

그렇기에 메인 출연자가 아무리 훌륭한 연기 또는 연주를 선사한다 해도 무대 위 한 구석에 틀어박혀 좋은 공연이 될 수 없다. 2007년 4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발레단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 합동공연. 후반 김주원의 독무는 황홀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 내내 맥이 빠졌다. 무슨 까닭인지 두 무용단 단원들의 움직임이 멍침처럼 자꾸 서로 얽혔다. 공연에서 주인공은 주역을 맡은 한 출연자일 뿐 결코 무대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준 경험이었다. 그러나 할리우드를 뒤따르는 한국영화계에서

는 스타 배우가 '왕'이다. 최근 한 TV에능프로그래밍 출연한 이병헌은 "브루스 윌리스가 촬영 현장에서 감독에게 제안한 내 단두 장면만 만들어줬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감독은 두말없이 윌리스의 말을 따랐지만 그 역시 그 장면을, 그 영화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을까. 최근 몇 년간의 한국영화와 같은 배우들에 감독만 계속 바뀐다.

한국 뮤지컬 시장의 외형은 순조롭게 성장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과 작품 수가 부쩍 많아졌고 관객도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그 성장세의 선두에 선 제작사의 관계자가 말했다. "작품 흥행을 보장하는 배우에게 회당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주는 상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출연료를 캐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한국 뮤지컬 시장의 상도(商道)다."

2006년 4~6월 연극 '사흘간의 비'로 미국 뉴욕 로코트웨이 무대에 데뷔한 세계적 스타 줄리아 로버츠는 회당 4300달러(약 480만 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영화 출연료는 편당 2000만 달러(약 224억 원). 상도란 아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다.

| 기고 |

'밀양 송전탑' 절차적 합리성을 존중하자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는 바로 사회적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밀양의 송전선로 건설 문제가 8년여를 끌어온 데 대해 오늘 이 시점의 결정을 상대로 예외적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타박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좀 더 복잡하다. 무엇보다 갈등의 발생 초기 단계에 제도적, 법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협의의 폭이 넓지 못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절차 마련에 소홀했다.

최근 국회가 중재자로서 나서, 주민들이 요구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적극 수용하면서 객관적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다시 밟아가고자 노력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쟁점이 맞서는 갈등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안한 것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충실히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의견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사실 어떤 사회적 갈등요소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과 절차적 합리성을 충실히 존중할 수 있는 국가가 곧 선진국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40일간의 협의체 운영 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협의체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자중화 등 현재 제시된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절차적 합리성을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듣기로 한 것이고, 이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여 숫자를 꼼꼼히 맞추어가며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번처럼 협의체의 다수 의견이 무시되고, 모든 절차적 과정을 없었던

듯하고 나면,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의 사결정을 해나갈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물론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유형적, 심리적 고통을 보듬으려는 노력은 마땅히 계속해야 한다. 송전탑이 들어서는 주민 지역에 대해 충분한 보상방안이 입법화되어 우선 당장 밀양 주민들의 재산권부터 확실히 지켜주어야 한다. 또한 재산권 문제뿐 아니라 주민 우선의 논의과정, 자연친화성, 전통에 대한 존중, 상호존중의 대화 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 정리되고, 적극 반영되어 향후 우리나라 송전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론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받침으로 삼아야 한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연구원

